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의 타당화

박 가 현 김 시 형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1,137명을 대상으로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이순목 등(2016)이 제시한 EFA-SEM의 4단계 절차를 따라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절차는 요인 분석 가능성 검토 및 요인수효 결정, 탐색적 회진, 부분제약 목표회진, 측정오차 간 상관 추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석 결과,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는 3개의 요인(관계적 신념, 개인내적 신념, 통념적 신념)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를 검토하였으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정서조절곤란 척도와 상관이 확인된 우울, 불안, 신체화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ES-K는 정서조절곤란, 우울, 불안, 신체화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본 연구의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서, 부정적 정서, 정서에 대한 신념, 타당화, EFA-SEM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동훈, (110-74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Tel: 02-740-1984, E-mail: dhlawrence05@gmail.com

정서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다. 정서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정서처리과정에 영향을 끼친다(Greenberg & Pavio, 2003; Leahy, 2002). 정서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란 정서를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정서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정서를 알아차리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건강한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자각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의 건설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한다(Leahy, 2002). 반면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인데, 자신의 정서를 수치스러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부정 감정이라 함은 슬픔, 분노, 질투, 불안, 우울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데(Leahy, 2002), 정서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부정 감정에 대해 경직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인지행동치료 모델에 따르면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발달단계에서 부적정 정서를 표현했을 때, 처벌을 받거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Surawy, Hackmann, Hawton, & Sharpe, 1995). 정서를 표현했을 때 따라오는 좋지 않은 결과가 학습된다면, 정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되고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피하고 억누르게 된다(Hambrook et al., 2011).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다양한 정신 병리의 발달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Rimes &

Chalder, 2010).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은 만성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섭식장애, 사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이승미, 오경자, 2006; Corstorphine, 2006; Cramer, Gallant, & Langlois, 2005; Ehlers & Clark, 2000; Jack, 1991; King & Emmons, 1990, 1991; Mongrain & Zuroff, 1994; Rimes & Chalder, 2010; Surway et al, 1995). 신체화의 핵심변인은 정서로 알려져 왔는데(Rieffe et al., 2007),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소로써 신체화와 정적상관이 보고되어 왔다(서성민, 권석만, 2016; Woolfolk & Allen, 2007). 또한,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같은 메타인지나 상위 인지 개념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적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서성민, 권석만, 2016; Leahy, 2002; Manser, Cooper, & Trefusis, 2012). 정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적 신호로서 적응적 역할을 담당한다(Greenberg, 2002).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의 적응적 역할을 저해하며,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지연되어 스스로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된다(Kennedy-Moore & Watson, 2001).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수용 받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의 힘들이나 고통을 주위에 털어놓기가 어렵다. 이는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사회적 혹은 정서적 자원을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Ali et al., 2000).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정서와 관련된 부

적응적 완벽주의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Rimes & Chalder, 2010).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핵심기제는 조건적 수용인데, 조건적 수용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성취를 했을 때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신지은, 이동귀, 2011).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힘들을 숨기고 약함을 보이지 않아야만 타인에게 수용 받고, 갈등을 피하며, 가까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기은폐 성향이 높게 보고된다. 다수의 연구에서 거식증환자들의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함께 높은 자기 은폐 성향을 보고하고 있다(Buchholz et al., 2007; Forbush & Watson, 2006; Geller, Cockell, Hewitt, Goldner, & Flett, 2008). 또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기희생 성향도 함께 보고된다(Brooks, Chalder, & Rimes, 2017).

한편, 정서에 대한 신념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정서를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화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며 각 문화권의 정서 경험과 표현은 상이하다(윤영선, 이민규, 2015). 유교 집단주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과 예의 바름과 같은 집단 문화적 가치들이 선호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솔직하고 강렬한 감정이나 의사표현은 지양되어왔다(최해연, 민경환, 2007).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개인은 부적인 감정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한의 민족 정서나 화병과 같은 독특한 문화적 증후군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성에게서 신체화 증후군이 많이 보고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여러 학자에 의해 신체화 증후군은 부적절한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문화에서 정서적 고통이나 부적 정서에 대해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임이 주장되어 왔다(Goldberg & Bridges, 1988; Kirmayer, 1984; Kleinman, 1977; Lipowski, 1988; Waitzkin & Magana, 1997). 문화가 정서를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에 대한 신념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최근의 치료법들은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치료법들의 공통점은 수용 중심치료법으로써, 정서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문제시 되는 정서나 인지와 싸우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행동치료(MBCT)는 감정, 생각, 감각의 비판단적인 알아차림과 수용을 반복해서 연습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 집단 토론을 통해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완화한다(Rimes & Chalder, 2010). 수용전념치료(ACT)는 수용, 인지적 탈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현재에 존재하기, 가치, 전념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이 형성되고 생각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Hayes, Strosahl, Bunting, Twohig, & Wilson, 2004).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는 마음챙김, 정서조절, 대인관계기술, 고통

감내력등의 훈련을 통해 정서에 대해 경직되고 부정적인 신념을 약화시킨다(Linehan, 1993).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부재했다. 통제, 억압과 같은 정서 관련 행동이나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부분적으로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Gratz & Roemer, 2004; Hayes et al., 2004; Williams, Chambless, & Ahrens, 1997), 정서에 대한 신념을 온전하게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정서에 대한 신념 그 자체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국내에서 최해연과 민경환(2005)이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외에서는 Manser 등(2012)이 상위인지 이론에 근거하여 정서 '경험'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정서신념 질문지(BAE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압도/통제불능, 수치심/비합리, 무의미, 비유용성, 유해성, 전염성의 6요인(43문항)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였다(서성민, 권석만, 2016). 한편, Rimes와 Chalder(2010)는 이보다 2년 앞서 정서 '경험'과 '표현'에 대한 신념을 모두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BE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12문항으로 간단하면서도, 정서 '경험'과 '표현' 두 측면에 대한 신념을 모두 측정한다.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는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 척도를 이용하여 신체화 장애,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완벽주의, 거식증, 폭식증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이은주

(2016)가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를 번안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나 타당화 하지 않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Rimes와 Chalder(2010)가 개발한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를 번안하고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여, 한국인의 정서 '경험'과 '표현'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K)의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K)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K)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2017년도 중견 연구 지원 사업 (과제번호 : NRF-2017S1A5A2A01025729)'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 허가 받아 활용하였다. 본 설문은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SKKU 2015-01-006-014), 이에 맞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해당 자료는 설문전문기관인 M사에 의뢰하여 전국(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충북, 강원, 울산, 제주, 세종)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4

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전문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1,600명의 설문대상 참여자 중 끝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M사를 통해 전달 받은 최종 자료는 1,137명의 자료였다.

1,137명의 자료를 무작위 난수를 생성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개의 집단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른 한 개의 집단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성별, 연령, 혼인, 자녀유무, 종교유무, 학력)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2.7%(여성 47.3%), 학력은 대졸 68.3%(고졸 13.1%, 대학원 졸업 10.3%, 대학교 재학 5.7%, 대학원 재학 2%, 중졸 이하 0.3%, 기타 0.3%), 혼인상태는 기혼이 55.1%(미혼 41.6%, 이혼/사별 3.7%, 기타 0.1%),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45.6%(없는 사람이 54.4%)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 561명 중 ‘남성’은 308명(55.1%), ‘여성’은 251명(44.9%)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9.6세로 최소 20세부터 최대 55세까지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218명(39%), ‘기혼’이 318명(56.9%), ‘이혼/사별’이 22명(3.9%), ‘기타’ 1명(0.2%)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참여자는 305명(54.6%), 자녀가 없는 참여자는 254명(45.4%)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대해서는 247명(44.2%)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12명(55.8%)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77명(67.4%)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75명(13.4%), ‘대학원 졸업’ 61명

(10.9%), ‘대학교 재학’ 31명(5.5%), ‘중학교 졸업이하’ 3명(0.5%), ‘기타’ 1명(0.2%)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정서에 대한 신념(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BES).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Rimes와 Chalder(2010)가 개발한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를 사용하였다. Rimes와 Chalder(2010)의 개발연구에서 BES는 12문항이며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S는 정서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신념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적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imes와 Chalder(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본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BES 척도개발자인 Katharine A. Rimes로부터 한국판 타당화를 허락을 받고, 번안을 진행하였다. 석사 과정생 1인과 박사 과정생 1인이 먼저 1차 번역한 후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친 이중 언어자 1인이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2차 번역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육 교수 1인이 최종검토 하여 문항을 확정하였다.

정서조절곤란(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16: DERS-16).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Bjureberg 등(2016)이 16문항으로 축약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DERS-16

은 충동통제곤란(3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3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2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5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3문항) 총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DERS-16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Bjureberg 등(201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불안,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2000)가 SCL-90을 축약하여 만들고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2012)이 타당화한 BSI-18을 사용하였다. BSI-18은 일상생활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경험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판 BSI-18의 연구(박기쁨 등, 2012)에서 Cronbach α 는 전체문항 .89, 신체화 .73, 우울 .80, 불안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 .96, 신체화 .91, 우울 .91, 불안 .92이다.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BES-K의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FACTOR 10.3(Lorenzo-Seva & Ferrando, 2015)과 SPSS 21.0, Mplus 8.0(Muthén & Muthén, 2017)을 사용하였다. 먼저, BES-K 타당화 연구의 분석절차는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1) 수집한 자료가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 검증과 Bartlet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공통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요인 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Kaiser 기준, Scree 도표, 평행 분석 총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요인수의 범위를 결정하였고, 4) 앞서 나온 요인별 모형을 EFA-SEM으로 분석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는 Boomsma(2000)와 Kline(2015)의 제안에 따라 χ^2 (chi-square)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검토하였으며, 각각 CFI는 .90(Bentler & Bonett, 1980) 이상일 경우, RMSEA는 0.08(Browne & Cudeck, 1993), SRMR은 0.06(Hu & Bentler, 1999) 이하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요인의 수가 정해진 이후 요인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고자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는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이용하여 회전을 실시하였다. 6) 회전 이후 행렬구조의 요인별 문항이 최소 1개의 요인에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복잡성(Cross loading, 2개 이상 요인에 .40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이는 경우)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 7)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석가능성과 이론적인 배경과의 일치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절차를 마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확정된 요인의 수와 요인별 문항

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분석으로 위해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 문항의 Cronbach α 를 확인하였으며, 동시 타당도 (concurrent validity) 검증을 위하여 유사한 변인인 정서조절곤란 척도와 선행연구를 통해 관계성이 확인된 우울, 불안, 신체화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가능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Factor 10.3을 이용하여 Bartlett 검증과 KMO지수(Cerny & Kaiser, 1977)를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 Bartlett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KMO지수는 .899로 .6 이

상으로 확인되어, 수집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요인 수 범위 결정

FACTOR 10.3에서 구한 다분 상관자료의 일반 고유치 값을 표 1에, 무선자료 고유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 차이가 평균화되는 시점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보면 2요인과 4요인사이의 고유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5요인부터는 고유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평균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평균화되는 5요인 직전인 4요인이 적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누적분산 비율을 검토하였다. Gorsuch(1983)는 누적분산 비율이 75~85% 정도면 무난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부터 75%를 상회하여 3개면 85%를 상회한다. 따라서

표 1. 다분 상관자료의 일반 고유치

요인 수	아이젠 값	고유치 차이	분산의 비율	누적분산 비율
1	5.602	4.382	0.669	0.669
2	1.220	0.620	0.146	0.815
3	0.599	0.262	0.072	0.887
4	0.338	0.059	0.040	
5	0.279	0.143	0.033	
6	0.137	0.019	0.016	

표 2. 무선자료 고유치

요인 수	실제자료 고유치	무선자료 고유치	95% 무선자료 고유치
1	62.165	24.279	31.851
2	14.612	21.142	26.408
3	6.613	17.416	22.195
4	5.858	13.27	18.34
5	4.42	9.48	14.90

2~3요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Timmerman과 Lorenzo-Seva(2011)의 제안에 따라 무선자료 고유치 분포에서의 95 백분위 값을 경험자료 고유치에 비교하여 평행성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미 2요인에서 무선자료 고유치가 경험자료 고유치를 앞질러 1요인으로 구성된 가능성이 있다. 발견법을 통한 요인의 범위는 1-4개로 판단되었다.

EFA-SEM 모형적합도 통한 요인 수 범위 축소

Mplus 8.0을 사용하여 1~4요인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 요인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모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line(2015)이 제안한 수용 가능한 모형적합도를 기준으로 할 때 1, 2요인 모형은 합치도가 나쁘고, 3요인부터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며, 갈수록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 2요인을 제외하고, 3요인과 4요인 모형에 대해 기초요인구조를 구한 후 GEOMIN 회전하고 마지막으로 해석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기초 요인 구조 및 요인 회전, 해석가능성 검토)

최종 요인 개수를 선택하기 위해 3요인과 4요인의 기초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탐색적 회전을 실시하였다. 우선 3요인, 4요인 모형에 대하여 기초요인구조를 구한 후, 탐색적 회전은 이숙문 등(2016)과 Browne(2001)의 제안에 따라 사각 GEOMIN을 선택하였다. 사각 GEOMIN은 변수복잡도를 낮추고, 단순구조의 가능성을 높이며, 해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표본이 적절한 크기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순목 등, 2016).

3요인, 4요인 모형에 실시된 탐색적 회전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4요인 모형에서 요인4는 지표가 되는 문항(40 이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요인 간 상관계수도 모두 유의하지 않으며, 요인4가 없으면 3요인과 요인구조가 동일하여 BES-K는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FA-SEM 1차 분석(3요인 모형의 탐색적 회전 결과)

3요인 모형에서 요인 1, 2, 3은 모두 정적 상관

표 3. 요인 별 모형 적합도

요인 수		df	CFI	TLI	SRMR	RMSEA
1요인	816.684	54	.785	.737	.086	.159(.149-.169)
2요인	339.583	43	.916	.872	.042	.111(.100-.122)
3요인	187.603	33	.956	.913	.026	.092(.079-.105)
4요인	93.174	24	.981	.946	.018	.072(.057-.087)

표 4. 3요인과 4요인의 기초요인구조 및 요인 간 상관계수

문항	3요인			4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V1	.217	.011	.543	.221	-.007	.538	.143
V2	.711	-.188	.190	.694	-.167	.203	.009
V3	.663	.019	.146	.731	.044	.020	.370
V4	-.011	.821	.084	-.019	.876	.016	.206
V5	.703	.325	-.189	.638	.361	-.138	-.022
V6	.857	-.109	.007	.854	-.072	-.021	.080
V7	.011	.611	.334	.043	.583	.294	.058
V8	.239	.621	.009	.234	.625	.017	-.095
V9	.759	.018	-.016	.781	.032	.017	-.359
V10	-.001	.331	.471	-.024	.302	.533	-.081
V11	.620	-.013	.390	.612	.001	.386	-.002
V12	.477	.066	.323	.480	.075	.315	-.037
	-			-			
요인간상관	.432*	-		.407*	-		
	.491*	.234*	-	.487*	.296*	-	
				.048	-.066	.100	-

* $p < .05$.

관계로 확인되었다. 문항들에 대한 요인계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각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에 대한 지표(indicator)가 되는지 변수 복잡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의 요인적재량의 크기(절대값이 .4 이상)로 보아 모두 1개의 요인에만 .4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여 Cross loading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요인 모형 2차 분석/3차 분석

v7, v10, v12는 2개의 요인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거나(3 미만의 차이) 높은 쪽에 속할 때 해석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좀 더 명확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을 3요인 모형으로 고정하고 2차 분석을 하였다.

3요인 모형에 대한 탐색적 회전 결과(2차 분석)와 그에 따라 지정된 목표행렬, 부분제약 목표회전 결과(3차 분석)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요인계수는 모두 표준화 계수이다. 계수의 크기가 대략 .4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순목 등, 2016). 모든 문항의 변수복잡도가 1이기 때문에 .40이 넘는 요인에 제약하여 목표회전을 한 결과, 여전히 변수복잡도는 1이었으며 요인적재량은 대체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최종 요인의 개수는 3개로 확정하였으며 요인1은 문항2, 3, 5, 6, 9, 11, 12로, 요인2는 문항4, 7, 8로, 요인3은 문항1, 10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별 문항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3요인 모형 2차 분석(탐색적 회전) 및 3차 분석(목표회전)결과의 형태계수

문항	탐색적회전			목표행렬			목표회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V1	.217	.011	.543			0	.300	.028	.472
V2	.711	-.188	.190	0			.784	-.191	.100
V3	.663	.019	.146	0			.716	.023	.052
V4	-.011	.821	.084		0		-.043	.854	.026
V5	.703	.325	-.189	0			.699	.330	-.282
V6	.857	-.109	.007	0			.909	-.115	-.092
V7	.011	.611	.334		0		.025	.644	.267
V8	.239	.621	.009		0		.221	.644	-.061
V9	.759	.018	-.016	0			.769	.017	-.109
V10	-.001	.331	.471			0	.045	.358	.412
V11	.620	-.013	.390	0			.706	-.003	.284
V12	.477	.066	.323	0			.542	.078	.235
요인 간 상관	-.432*	-					-.495*	-	
	.491*	.234*	-				.470*	.237*	-

* $p < .05$.

표 6. 요인 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요인
②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1. 관계적 신념
③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하찮게 볼 것이다.	
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태연한 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⑥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⑨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 혼자 간직해야한다.	
⑪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의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	
⑫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항상 내 감정을 제어하고 있기를 기대한다.	2. 개인내적 신념
④	나는 내 감정을 통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⑦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⑧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3. 통념적 신념
①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	
⑩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대상을 반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절반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나머지 절반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수정지수(Modified Indicator)를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수정지수를 보이는 부분은 문항 오차 간 공분산 부분이었다.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 57.1, 8번 문항과 9번 문항이 55.17의 수정지수를 보여, 해당 문항 간의 공분산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는 것은 척도의 일반화와 문항 간 상관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Kline(2015)의 제안에 따라 2개의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2개의 공분산 설정 후 모형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동시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BES-K의 동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BES-K 전체 및 하위요인과 정서조절관련, 우울, 불안, 신체화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요인 수		<i>df</i>	CFI	SRMR	RMSEA
3요인	317	51***	.895	.064	.108(.095-.120)
공분산을 설정한 3요인	319	49***	.921	.052	.098(.088-.108)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요인 명	문항	표준화 추정 값	추정 값	<i>SE</i>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관계적 신념	문항_2	0.743	1.144	0.0567***	1.033	1.255
	문항_3	0.734	1.227	0.0619***	1.106	1.349
	문항_5	0.724	1.054	0.053***	0.95	1.158
	문항_6	0.807	1.229	0.0538***	1.123	1.334
	문항_9	0.751	1.132	0.0543***	1.026	1.239
	문항_11	0.808	1.212	0.0531***	1.108	1.316
2.개인내적 신념	문항_4	0.631	0.837	0.054***	0.731	0.942
	문항_7	0.82	1.208	0.0578***	1.095	1.321
	문항_8	0.723	1.011	0.0554***	0.902	1.12
3.통념적 신념	문항_1	0.682	1.11	0.0725***	0.968	1.252
	문항_10	0.607	0.966	0.07***	0.829	1.103

****p* < .001.

표 9. 동시 타당도 확인을 위한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1. BES-K	1							
2. 관계적 신념	.802**	1						
3. 개인내적 신념	.843**	.696**	1					
4. 통념적 신념	.869**	.643**	.756**	1				
5. DERS	.490**	.518**	.496**	.504**	1			
6. 우울	.325**	.359**	.360**	.374**	.541**	1		
7. 불안	.289**	.326**	.329**	.361**	.526**	.873**	1	
8. 신체화	.234**	.264**	.268**	.311**	.467**	.793**	.869**	1

* $p < .05$. ** $p < .01$.

다. BES-K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DERS와의 상관관계가 .49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BES-K와 상관관계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울, 불안, 신체화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모두 정적 상관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23~.37의 상관을 보여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Rimes와 Chalder(2010)이 개발한 BES를 국내에 타당화하기 위해 한국 성인 1137명을 대상으로 BES-K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BES-K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샘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먼저 요인분석을 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Bartlett 검증과 표집적절성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

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합치도와 모형 적합도,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BES-K는 3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대상자가 아닌 다른 대상자들에게 3요인으로 구성된 BES-K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S-K의 3요인은 ‘관계적 신념’, ‘개인내적 신념’, ‘통념적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관계적 신념’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태연한 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 혼자 간직해야한다’ 등의 7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 초점 두고 있어, ‘관계적 신념’으로 명명하였다. ‘개인내적 신념’은 ‘나는 내 감정을 통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의

3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감정을 이겨내고 극복해야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내적 신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통념적 신념’은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의 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신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념적 신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판의 단일구조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BES-K는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와 개념 신뢰도를 보이며 제거되는 문항 없이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ES-K는 다른 정서에 대한 신념척도들과 유사성을 보였다. BES-K의 하위요인 중 ‘관계적 신념’은 최해연과 민경환(2005)가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척도의 하위요인 중 ‘관계정서적 신념’과 유사한데, ‘관계정서적 신념’은 정서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거나 친사회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BES-K의 다른 하위 요인인 ‘개인내적 신념’은 Gross가 개발한 정서조절 척도(ERQ)의 하위 요인 중 ‘표현억제’와 유사하며, ‘표현억제’는 부정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BES-K의 마지막 하위 요인인 ‘통념적 신념’은 Manser등(2102)이 개발하고 서성민, 권석만(2016)이 타당화한 다차원적 정서신념 질문지(BAEQ)의 하위 요인인 ‘수치심/비합리’와 ‘유해성’과 유사하다. 이 하위요인들은 공통적으로 ‘불쾌함’이라는 부정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념을 나타낸다.

원판의 단일요인과는 달리 BES-K가 3개의 하위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문화적 차이와 표본의

크기 및 표본 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은 관계 중심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속에서 조화추구를 중요시 한다(김지경, 김명소, 2003).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보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질서와 조화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감정 경험이나 표현의 기준이 타인이나 사회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이 ‘관계적 신념’이라는 하위요인이 분리되게 된 원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반 성인 1137명을 대상으로, 원판은 만성피로증후군(CFS)을 진단을 받은 121명과 일반 성인 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특성의 차이가 하위요인을 나누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며, 중단연구를 통해 BES-K의 요인구조를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BES-K가 신뢰롭고 타당한 지 알아보았다. BES-K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와 각 하위요인은 모두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여, 각 문항들이 척도를 일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연구를 통해 상관관계가 유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울, 불안, 신체화와 상관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여 동시타당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우울과 불안(이승미, 오경자, 2006; Cramer et al., 2005; King & Emmons, 1990, 1991; Mongrain & Zuroff, 1994), 신체화(서성민, 권석만, 2016; Woolfolk & Allen, 2007), 정서조절곤란(서성민,

권석만, 2016; Leahy, 2002; Manser, Cooper, & Trefusis, 2012; Rimes & Chalder, 2010)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BES-K가 개인의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소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정서 경험 및 표현과 정서조절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신병리와 연관이 있다(Corstorphine, 2006; Cramer et al., 2005; Ehlers & Clark, 2000; Jack, 1991; Rimes & Chalder, 2010; Surawy et al., 1995; Woolfolk & Allen, 2007). BES의 개발자인 Rimes와 Chalder는 BES를 개발한 후 이 척도를 이용하여 신체화 장애,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완벽주의, 거식증, 폭식증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간편하게 정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우리나라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구를 활용하여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신병리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BES-K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서 그 자체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개입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정서에 대한 신념은 간편하게 측정가능하며 비교적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작용한다. BES-K는 인지행동치료 접근법이나 정서중심치료 접근법을 선호하는 상담자나 심리치료사들이 내담자의 정서와 정서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인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서 표현과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BES-K를 사용하여 정서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는 것은 호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문화증후군과 신체화 증후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치료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인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정표현보다는 체면과 예의가 우선시되는 한국 문화(최해연, 민경환, 2007)에서 한국인들은 정서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BES-K를 활용하여 정서에 대해 경직되고 역기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고 이 신념을 완화하는 개입을 통해,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화병과 신체화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대한민국의 성인인 대상으로 연령대가 20-55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다른 모집단까지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모집단의 특성이 크게 다른 아동, 청소년, 노인, 임상집단 등에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내적 신뢰도와 동시타당도만 확인하였기에 향후 종단연구를 통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예측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원판과는 다른 결과인 BES-K의 3요인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양한 정서에 대한 신념척도 중에서도 간단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BES를 한국에 타당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BES-K를 활용하여 신체화 장애,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완벽주의, 거식증, 폭식증 등의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 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서성민, 권석만 (2016). 상위인지적 정서신념과 신체화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97-223.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윤영선, 이민규 (2015).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67-586.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은주 (2016). 심리상담에서 낙인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 전문가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Ali, A., Toner, B. B., Stuckless, N., Gallop, R., Diamant, N. E., Gould, M. I., & Vidins, E. I. (2000). Emotional abuse, self-blame, and self-silencing in women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Psychosomatic Medicine*, 62(1), 76-82.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jureberg, J., Ljótsson, B., Tull, M. T., Hedman, E., Sahlin, H., Lundh, L. G., ... & Gratz, K. L.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the DERS-16.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2), 284-296.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 461-483.
- Brooks, S. K., Chalder, T., Rimes, K. A. (2017). Chronic fatigue syndrome: cognitive,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cessing vulnerability factor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5(2), 156-169.
- Browne, M. W. (2001). An overview of analytic rot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1), 111-15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chholz, A., Henderson, K. A., Hounsell, A., Wagner, A., Norris, M., & Spettigue, W. (2007). Self-silencing in a clinical sample of female adolescents with eating disorders.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6(1), 158 - 163.
- Cerny, B. A., & Kaiser, H. F. (1977). A study of 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for factor-analytic correlation matric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1), 43-47.
- Corstorphine, E. (2006). Cognitive - emotional - behavioural therapy for the eating disorders: Working with beliefs about emotions. *European*

- Eating Disorders Review*, 14(6), 448-46.
- Cramer, K. M., Gallant, M. D., & Langlois, M. W. (2005). Self-silencing and depression in women and men: Compar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581-592.
- Derogatis, L. R. (2000). BSI-18: Brief Symptom Inventory 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National Computer Systems Pearson, INC, Minneapolis, MN, USA.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orbush, K., & Watson, D. (2006). Emotional inhibition and personality traits: A comparison of women with anorexia, bulimia, and normal controls.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18(2), 115-121.
- Geller, J., Cockell, S. J., Hewitt, P. L., Goldner, E. M., & Flett, G. L. (2008). Inhibited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in anorex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1), 8-19.
- Goldberg, D. P. & Bridges, K. (1988). Somatic presentations of psychiatric illness in primary care set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2(2), 137-144.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LEA, Hillsdale, NJ.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1), 41-54.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3).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Bunting, K., Twohig, M. P., & Wilson, K. G. (2004). What I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S. C. Hayes, K. D. Strosahl(Eds.), *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p.3-29)*. New York: Springer.
- Hambrook, D., Oldershaw, A., Rimes, K., Schmidt, U., Tchanturia, K., Treasure, J., Richards, S., & Chalder, T. (2011). Emotional expression, self silencing, and distress tolerance in anorexia nervosa and chronic fatigue syndrom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3), 310-325.
- Hu, L., & P. M. Bentler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ennedy-Moore, E., & Watson, J. C. (2001). How and when does emotional expression help?.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3), 187-212.
- Kirmayer, L. J. (1984). Culture, affect and somatization-part 1.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1(3), 237-262.
- Kirmayer, L. J. (1984). Culture, affect and somatization-part 2.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1(4), 159-188.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ng, L. A., &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2), 131-150.

- Kleinman, A. M.(1977). Depression, somatization and the "New cross-cultural psychiatry". *Social Science & Medicine*, 11(1), 3-1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ahy, R. L. (2002). A Model of Emotional Schema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9(3), 177-190.
- Linehan, M. M. (1993b). *Skills training manual for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powski, Z. J.(1988). Soam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1), 1358-1368.
- Lorenzo-Seva, U., & Ferrando, P. J. (2015). FACTOR 10.3. University of Rovira i Virgili, Spain.
- Manser, R., Cooper, M., & Trefusis, J. (2012). Beliefs about Emotions as a Metacognitive Construct: Initial Development of a SelfReport Questionnaire Measure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Emotion Regul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3), 235-246.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7). *MPlus (version 8).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Rieffe, C., Terwogt, M. M., Bosch, J. D., Frank Kneepkens, C. M., Douwes, A. C., & Jellesma, F. C. (2007). Interaction between emotions and somatic complaints in children who did or did not seek medical care. *Cognition and Emotion*, 21(8), 1630-1646.
- Rimes, K. A., & Chalder, T. (2010).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validity, reliability and sensitivity to chang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3), 285-292.
- Surawy C, Hackmann A, Hawton K, Sharpe M. (1995). Chronic fatigue syndrome: a cognitive approach.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5), 535-544.
- Timmerman, M. E., & Lorenzo-Seva, U. (2011). Dimensionality assessment of ordered polytomous items with parallel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6(2), 209.
- Waitzkin, H. & Magana, H. (1997). The black box in somatization: unexplained physical symptoms, culture, and narratives of trauma. *Social Science & Medicine*, 45(6), 811-825.
- Woolfolk, R. L., & Allen, L. A. (2007). *Treating somatization: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K. E., Chambless, D. L., & Ahrens, A. (1997). Are emotions frightening? An extension of the fear of fear construc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3), 239-248.

원고접수일: 2019년 9월 25일

논문심사일: 2019년 10월 20일

게재결정일: 2019년 11월 1일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Gahyun Park Sihyeong Kim Dong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BES-K). The BES(Rimes & Chalder, 2010)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used to measure the beliefs about experiencing and expressing negative emotions. For this study, 1,137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ur steps of the EFA-SEM procedure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ES-K. The results showed three-factor constructs(relational beliefs, intrapersonal beliefs, and conventional beliefs). Also, the BES-K facto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correlations. The BES-K fact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dysregulation, anxiety, depression, and somatization, supporting good concurrent validity. In conclusion, the BES-K was found to be a valid instrument measuring the beliefs about emotions of the Korean population.

Keywords: emotion, negative emotion, beliefs about emotions, validation, EFA-SEM